



1일 오전 무등산국립공원의 대표적 해맞이 명소인 중머리재를 찾은 시민들이 새해 첫 해가 떠오르자 탄성과 함께 새해 소망을 기원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

무등 정기로 새 세상을 세월호 인양·진실 규명

“대한민국 바로 세우고
광주시민 모두가 잘 되길”
시민 7천여명 무등산서 합성

떠오르는 무등의 태양을 보며 광주시민들은 가족의 건강과 평온, 자녀의 대학 합격,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정치권력의 각성을 기원했다.

새해 첫 날 국립공원 무등산 중머리재에 오른 시민들은 오전 8시33분께 장불재 옆 등성이로 새해 첫 해가 떠오르자 ‘와~’ ‘야호’라며 일제히 탄성을 쏟아냈다.

이날 무등산 해맞이에는 시민 7000여명이 참여해 2017년 첫 일출을 감상했다. 시민들은 첫 해가 떠오르자 스마트폰 카메라로 일출의 장관을 담으며 가족의 건강과 평온을 기원했다.

이성자(여·59·주부)씨는 “지난해엔 나라가 안팎으로 시끄러웠지만 우리 가족에게 축복의 한 해였다”며 “큰 딸이 교육공

무원에 합격하고 둘째 아들은 대학에 들어갔다. 올해도 큰 딸의 기운을 받아 우리 가족은 물론 광주시민 모두가 잘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구 치평동에서 온 한소연(여·20)씨는 “무등산 일출을 보고 싶어 부모님과 함께 왔다”며 “중머리재에서 예상시간보다 한참 지났는데도 해가 떠오르지 않아 괜히 왔나 걱정했는데 아름다운 일출을 보게 돼 기뻐다”며 “올해 대학 신입생이 되는 데 사고없이 즐거운 대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망을 전했다.

자영업업을 하는 김인석(52)씨는 “아름다웠던 병신년을 보내고 새해에는 붉은 닭의 힘찬 기운이 만방에 퍼지기를 기원한다”며 “특권층만이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자영업자 등 국민이 잘사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1일 오후 4시까지 총 1만9678명의 방문객이 무등산을 찾았다고 밝혔다. /김한영기자 young@

칼바람 부는 동거차도 앞바다
유족들 눈물의 차례상
일출보며 그리운 이름 불러

“올해는 꼭 세월호를 인양하고, 진실을 규명해주소서.”

2017년 1월1일, 세월호 인양 작업 현장이 내려다보이는 동거차도 앞바다에 새해가 떠올랐다.

세월호 유족과 생존자, 4·16연대 등 41명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서려있는 진도 맹골수도 바다를 배경으로 차례상을 차렸다.

차례상 앞에 놓일 지방은 세월호 희생자와 미수습자들의 이름과 얼굴이 새겨진 펼침막이 대신했고, 차례상에는 전통차례 음식은 물론 단원과 학생들이 살아생전 좋아하던 피자과 치킨 등이 올랐다. 차례상 맨 앞자리엔 아직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들에게 바치는 떡국이 아홉

릇 놓였다.

세월호 유족과 시민 추모객들은 떠오르는 새해 일출을 바라보며 미수습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 또 “올해는 꼭 세월호를 인양하고, 진실을 규명하게 해달라”고 두 손 모아 기원했다. 이어 왼편으로는 구름 사이로 환하게 모습을 드러낸 새해 일출을, 오른편으로는 세월호 참사현장을 배경 삼아 차려진 차례상에 술을 바치고, 묵념으로 떠난 이들을 기렸다.

차례를 마친 가족과 추모객들은 “우리는 9명의 미수습자와 희생자 유품이 세월호와 함께 묻혀 있는 동거차도 앞바다를 바라보며 2017년 새해를 맞는다”며 “올해는 전체 국민의 힘으로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실현하는 해가 될 것이다”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이들은 소형선박인 ‘진실호’를 타고 사고 해역을 찾아 준비한 꽃과 음식물을 바다물에 띄운 뒤 돌아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연합뉴스

속수무책 AI…전남 오리산업 ‘흔들’

생산량 회복 빨라야 8개월…정부, 가금류 사육 휴지기제 도입 검토

나주에 이어 영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번지면서 전국 최대 오리 산지인 전남의 오리산업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전남도는 나주·영암 오리농장에 대해 AI 바이러스 전수 조사를 1일부터 4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는 살처분 가금류가 30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집중·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겨울철 일정기간 닭·오리 사육을 못하도록 하는 ‘가금류 휴지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AI 발생 사례는 씨오리 농장 7건, 육용 오리 5건, 산란계 2건 등 모두 14건이다. 지역별로는 나주 8건, 구례·해남·영암·무안·장성·진도 1건씩이다. 도축출하 과정에서 H5N6형 바이러스가 확인된 해남 화산면, 폐사 신고가 접수 후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된 나주 반남면 육용 오리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도 진행 중이다.

이들 농장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 씨오리와 육용오리 농장에서 나란히 7건씩 발생하

게 된다. 살처분 규모는 닭 68만5000마리, 오리 53만8000마리 등 122만3000마리다.

사상 최대인 68건 발생으로 286만 마리가 살처분된 2014년에는 못 미치지만, 당시에는 1년 내내 발생이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올해를 발생 추이가 만만치 않다. 39건이 발생했던 2015년 살처분량 93만 마리는 이미 넘어섰다.

오리 시장은 급격히 위축됐다. AI 발생 전 도내 사육량은 900만 마리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12월 30일 현재 345만7000마리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육량 감소는 살처분 영향도 크지만 ‘오리 벨트’라

불리는 나주·영암 상당수 농장의 새끼 오리 입식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나주 반남면에서 AI가 발생한 뒤 주변 농장 살처분 중 역학조사에서 인접한 영암군 시종면에서까지 AI가 확인돼 국내 1, 2위 사육지인 나주와 영암이 모두 묶이더니 피했다. 생산량 회복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8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적으로 302곳에서 AI가 확진된 가운데 국립축산식품부는 최근 전남도 등이 가금류 휴지기제 도입을 건의함에 따라 관련 제도 마련을 추진 중이다. 휴지기 적용 가능 시기는 AI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해질녘 17:32

날씨 10:10

달집 21:25

큰 일교차 주의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3/11	보성	3/11
목포	4/11	순천	3/11
여수	5/12	영광	0/11
나주	0/11	진도	3/11
완도	4/11	전주	3/11
구례	0/11	군산	3/10
강진	1/11	남원	0/10
해남	1/11	축산도	7/11
장성	0/1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남서~서 0.5	서~북서 0.5~1.0
남부	남서~서 0.5~1.5	서~북서 1.0~2.0
남해	남서~서 0.5~1.0	서~북서 0.5~1.0
서부	남서~서 1.0~1.5	서~북서 1.0~2.0
남부	남서~서 1.0~1.5	서~북서 1.0~2.0

◇생활지수

뇌졸중	보통
감기	보통
체감온도	관심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9:39	04:22
	22:14	16:59
여수	05:05	11:40
	17:48	23:50

◇주간 날씨

3(화)	4(수)	5(목)	6(금)	7(토)	8(일)	9(월)
0/9	-1/10	1/8	2/10	-1/9	0/7	0/7

빛 공해 차단...광주 전역 조명관리구역 지정

1일부터 광주시 전역이 조명관리구역으로 지정, 시행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예방하고 동식물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해 시내 전역(501.18㎢)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조명환경 관리구역은 토지 용도와 이용 현황,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야생동물 및 습지 지정 현황 등을 고려해 4종으로 구분됐다. 녹지나 보전관리지역(361.91㎢)인 1종부터 2종인 생산계획관리지역(31.93㎢), 3종과 4종인 주거지역(74.78㎢), 상업공업지역(32.57㎢) 등이다.

적용 대상 조명기구는 가로등, 보안등, 옥외광고등, 전체 면적이 2천㎡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대형 건축물, 숙박·위락시설 조명 등이다.

광주시는 2014년 환경영향 평가, 지난

해 방지방안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빛공해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방지대책, 조명환경 개선사업, 홍보·교육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정 전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새로 설치하게 되는 조명기구는 바로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유예 기간이 무려 5년이나 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광주에서는 그동안 내온사인, 옥외광고물 등 불빛으로 수면이나 농작물 생육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증가세를 보여 ‘빛의 도시’로서 위상이 흔들렸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접수된 빛공해 민원은 2013년 164건, 2014년 168건에서 지난해 423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

입찰 공문서 변조 보성군청 사무관 구속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입찰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행사 및 입찰방해)로 보성군청 사무관 이모(53)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0월께 보성군이 발주한 빗축제 용역의 입찰 참가 자격조건 등을 특정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고치고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임의로 변

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업체와 이씨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보성군청 일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대한골프협동조합

Korea Golf Coop

회원가입 절차

*신청서 작성 (팩스, 카톡, 문자 가능)
*년회비 (130,000원)

회원가입 혜택

*제휴 골프장 및 리조트 할인혜택
*제휴 골프용품 할인혜택
*국내, 해외 골프투어

대한골프협동조합

골프장 선불회원 컨설팅 사업

국내외 골프투어

지역사회 공헌사업

골프동호회 육성/골프꿈나무 지원

화순CC

JNJ

영광CC

아크로

화순엘리체

보성CC

디오션

함평엘리체

제주

고창

레이저 이용혜택!!

엘도라도리조트, 무주토비스콘도, 서해안변산, 서해안대천, 담양메타펜션, 제주골프텔, 화순, 속초, 제주, 충무 금호리조트

대한골프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8(치평동 890-12) ☎(062)371-1800 · 010-6270-1879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관광호텔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대형 웨딩홀 준공

400석 대연회장 신축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결혼식/피로연/고향연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